회생회사 인수자격, 기존 거래처도 있어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가 있다. 회사의 수익성, 자산의 가치 등을 평가받아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상황, 즉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영업을 해나갔을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변제율이 높은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이 경우 채무 일부를 면제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한내에 채무를 변제해 나가게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도 회사는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등 M&A 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인수자로부터 거액의 인수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인수대금으로 조기에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이다. 청산가치가 높아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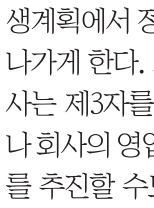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제3자가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이거나 주주에 해당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뤄지는 M&A과정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즉 법원을 통해 채무 다수를 탕감 받고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와 인수자가 서로 이득을 나누고자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인 양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실질을 준수했다면, 단지 채무자 회사나 그 경영자가 인수자 사이 특정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M&A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5항은 '채무자 회사의 자본감소 후 신주발행 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1조의 2에서는 '회사의 채무자인 이사나 그 특수관계자,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거나, M&A의 인수인이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사, 감사, 지배인과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해당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재정파탄이 이사, 감사, 주주 등으로부터 촉발됐고 M&A 인수인이 그들 본인, 특수관계인 이거나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단지 채무자회사 또는 그 경영진과 매우 밀접해 보인다는 등의 '의심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누구도 인수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래된 거래관계가 있다는 등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잘 알만한 특정 요인이 있는 인수인은 M&A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채무자 회사를 더욱 빠르게 재건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거래처가 급히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회생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 회사의 재정 파탄에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거나, 회생절차 내 M&A의 진행에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채무자 회사 또는 그 경영진과 밀접한 제3자가 인수인으로 나서더라도 실리를 중시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전국민 보는 경선 토론회, 발언에 신중함 필요하다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IT부〉

조기대선으로 각 당이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바쁜 가운데, 공식 석상인 경선 토론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준 낮은 질문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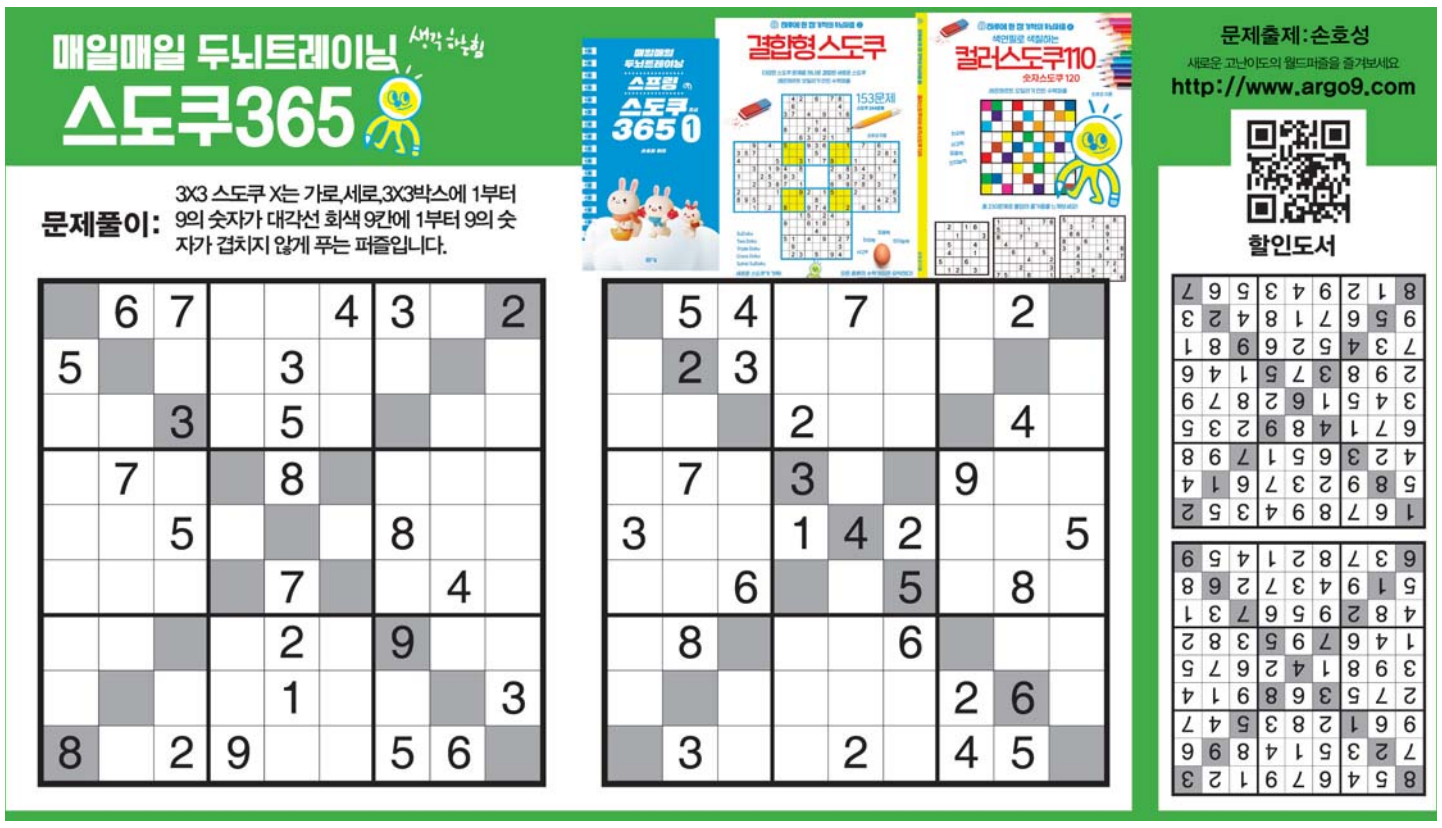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구시장, 대선 후보 출마 경험까지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정치 대선배'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 후보는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캠프 내) 청년의 꿈에서 이것은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소위 '밑밥'을 깔았다.

홍 후보가 한 질문은 상식 밖이었다. 홍 후보는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두를 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한 분은)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애써 넘겼다. 거기서 그만했어도 질문이 경선 토론회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고 비판을 받을텐데 홍 후보는 첨언을 했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냐느니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해버린 효과를 냈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사람도 한 후보가 받았을 모멸감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질문이었다. 홍 후보가 종이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보니, 아마 경선 토론애서 한 후보에게 꼭 이 질문은 해야 겠다고 준비한 것 같다. 한 후보는 "유치하시네요"라고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 후보의 질문 수준도 충격적이지만, '정치 대선배'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한 질문이라고 전제를 한 것은 당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 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말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 후보의 외모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한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홍 후보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공약에 대해 질의하자 홍 후보는 "나는 잘 모른다"고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음 3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48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6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2년생** 먹을 때만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쓰자. **84년생** 차 사고 수이니 오전부터 운전에 주의해야.

37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49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61년생** 지혜는 샘솟지 않아도 근면함을. **73년생** 무리한 방법의 재투자는 재난초래. **85년생** 동업은 우선 내가 많이 양보한다는 마음을.

38년생 집들이하는 날. **50년생** 준비 없는 동분서주는 이익이 없다. **62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74년생**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사정 돌아볼 여지가 없다. **86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39년생 생산성을 이끌어 이득 발생. **51년생** 향상심이 없이 보내는 날은 의미가 없다. **63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75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원망하지 마라. **87년생** 돈이 밝은 곳에 있으면 지출만 커진다.

40년생 소통의 방법을 알면 날개를 다는 형국. **52년생** 주변을 탓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64년생** 일할 터전이 있어 의욕 넘침. **76년생** 좋지 못한 사람과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88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강가서 분풀이.

41년생 늦은 주식투자는 친구 말보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53년생**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이다. **65년생** 추진력이 좋은 장점. **77년생** 뒤덮인 안개처럼 앞을 못 보겠다. **89년생** 내가 가진 특기로 우월성은 자제해야.

42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54년생** 부모에게 효도하라. **66년생** 대장목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펴라. **78년생** 오십 보나 백 보나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 **9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하게 되니.

43년생 밤이 지났으니 곧 밝은 새벽이 온다. **55년생** 무리수를 두는 투자는 후회를 낳는다. **67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여 재충전하는 것도. **79년생** 학문의 발전은 없었으나 기술은 최고였다. **91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했는데.

44년생 집 매매는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56년생** 재물이 융통되어 급한 불은 끄게 된다. **68년생** 목소리를 낮추라. **80년생** 지붕 위에 지붕을 세우는 것처럼 부질없다. **92년생** 기도를 올려보면 힘겨움도 줄어들고 닥쳐올 어려움도 덜게 된다.

45년생 밤이 낮처럼 밝아 잠 못 이룬다. **57년생** 까마귀는 자라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 **69년생** 기도로 지혜가 밝아진다. **81년생** 일찍 귀가하도록. **93년생** 개개인 복덕의 차이와 운명이 펼쳐지는 발현의 강도가 어제오늘 다르다.

46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58년생** 구름만 끼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 내야. **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갑자가 배가 아프다. **82년생**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온다. **94년생** 운세가 흔들리니 재투자는 신중해야 피해 안 본다.

47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59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니 그만큼 환경이 중요. **71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김. **83년생** 만남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95년생** 비가 많이 내리니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려나.

김상회의 四季

출세하고 싶다면

출세(出世)는 한문 그대로 직역하여 보자면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다. 보통 성공을 뜻하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있다. 중국을 비롯한 유교권 동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입신양명은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문의 영광이 된다. 출세(出世)라는 그 단어 한 마디가 내 표하고 있는 의미는 동아시아 고유의 중요한 가치로서 동경과 염원이기도 하며 오죽하면"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까지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을 남기고 최소한 이름값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문화적 집단의식이기도 하다. 단지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다는 것과 출세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한다는 것은 아예 결이 다른 얘기가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입신양명을 위한 우선적이고 전통적인 출세수단은 과거시험 급제였다.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명문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행시나 사시 같은 고등 고시에 합격하는 것, 흔히 말하는 판검사와 같은 '사'자 및 의사 전문직 직업을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출세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회적 성공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전인적 교육이 아닌 좋은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병폐적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나 현대사회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때의 과오나 실수도 유명인이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지며 온갖 화살을 다 받게 된다.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선은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